

# LG디스플레이 영업이익 “사상최고”

## 1/4분기 8810억원에 매출 4조360억원 … 영업이익률 22% 달성 호황

LG디스플레이가 2008년 1/4분기 영업이익이 8810억원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.

LG디스플레이는 4월10일 2008년 1/4분기 매출이 4조360억원, 영업이익이 88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.

LG디스플레이는 2007년 4/4분기에도 매출 4조3220억원, 영업이익 8690억원으로 각각 사상 최고의 분기 영업 실적을 올렸었다.

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전분기대비 매출은 7%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함과 동시에 208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흑자전환을 이루었다.

특히, 1/4분기에 영업이익률 22%를 달성함으로써 LCD 호황 국면을 반영한 눈부신 성적표를 작성했다.

또 1/4분기 EBITDA 마진(법인세·이자·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)이 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(5150억원) 대비 211% 증가했고, 당기 순이익도 7170억원으로 2007년 1/4분기 1690억원 순손실보다 크게 개선됐다.

아울러 1/4분기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총 2조9880억원으로 1조70억원 늘었고, 순차입금 비율이 17%에서 12%로 개선되는 등 재무구조도 더욱 탄탄히 다졌다.

LG디스플레이는 “LCD패널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원가절감 활동과 각 생산라인에서 창출한 높은 생산성의 결과”라고 설명했다.

또 “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맥스 캐파(Max Capa: 생산극대화), 민 로스(Min Loss: 손실최소화) 등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은 “새로운 사명인 LG디스플레이로 첫 출발한 1/4분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”면서 “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8세대 생산라인을 구축해 미래 경쟁력을 확실하게 준비해 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1/4분기 매출 구성비중은 TV용 LCD 패널 44%, 데스크톱 모니터용 26%, 노트북PC용 24%, 중소형 어플리케이션용 6%였고, 면적기준 출하량은 7% 줄어든 320만㎡를 나타냈다.

LG디스플레이는 “2/4분기 면적기준 출하량은 1/4분기 대비 10%대 중반의 증가가 예상되며, m<sup>2</sup>당 평균판가(ASP/m<sup>2</sup>)는 10% 이하의 하락을 나타낼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LG디스플레이 CFO 정호영 부사장은 “2/4분기에는 시장 성장에 대비해 판매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, 나아가 고객가치와 주주가치를 한층 제고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4/10>